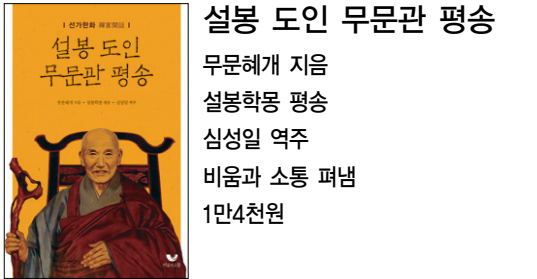


48공안 한 손에...책 가볍지만 한 쪽 한 쪽은 무거워



설봉 도인 무문관 평송
 무문혜개 지음
 설봉학몽 평송
 심성일 역주
 비움과 소통 퍼냄
 1만4천원

남송시대 무문 혜개(無門慧開, 1183~1260) 선사가 편찬한 공안집 《무문관》을 우리나라 근세의 선지식인 설봉 학몽 스님이 그의 평과 송을 붙여 다시 소개한다.

근래 들어 여러 《무문관》 번역서들이 출판되었는데, 대부분 원문에 대한 번역과 각적 공안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역주자인 심성일이 설봉 학몽 선사의 법어집인 《설봉대전》에서 《무문관》에 평송을 붙인 것을 발견하여 출간에 이르렀다. 역주자는 기연이 될만한 설화들을 덧붙였다고 역주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설봉 스님과 그의 선풍을 되살려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간하게 됐다.”고 출간의 취지를 밝혔다.

조주 화상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무(無)” 무문은 말한다.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의 관문(祖師關)을 꿰뚫어야 하고, 묘한 깨달음은 반드시 생각의 길(心路)이 끊어져야 한다. 조사의 관문을 꿰뚫지 못하고 생각의 길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모두가 풀과 나무에 빌붙어 사는 귀신일 뿐이다.” 이를 다시 계승으로 이른다. “개의 불성, / 불법(正念)을 온전히 드



만공 스님의 법을 이은 설봉 스님

러냈도다. /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에 걸리면 / 목숨을 잃으리라. 이에 설봉 스님의 평송이 이어진다. “이 ‘무’ 자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골수와 역대 조사들의 안목과 모든 중생의 본래면목을 한꺼번에 못사람들의 면전에 곧장 드러내 보였거늘, 어찌하여 꿰뚫어 보지 못하고 눈동자를 바꾸어 버리는가?” 설봉 스님이 계승으로 이른다.

“저울 머리를 씻듯이처럼 굳게 짓밟으니 / 부처와 조사도 원래 모두 알지 못했네. / 두 마리 진흙소가 싸우며 바다에 들어가고 / 금 까마귀는 야밤에 하늘을 꿰뚫고 날아가도다. // 있다는 말, 없다

선종 최후의 공안집 ‘무문관’ 〈설봉대전〉의 ‘무문관 평송’ 소개 기연 설화 덧붙여 이해 도와

는 말 모두가 옳지 않으니 / 백년 묵은 요괴가 헛되이 입을 열었다. / 우리 집엔 일 없어 논밭 한가운데 / 해가 서산에 지니 달이 동쪽에서 뜨네.” 그리고 역주자의 기연설화가 이어진다. 이렇게 책은 무문의 공안과 계승, 그 공안에 설봉의 평과 송, 그리고 역주자의 기연 설화가 이어져서 하나의 공안을 공부한다.

조주의개(趙州狗子), 백장과 들어우(百丈野狐), 달마는 수염이 없다(胡子無鬚) 등 무문의 공안이 이어진다.

“부처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근본을 삼고, 문이 없는 것으로 법으로 들어가는 문을 삼는 것인데, 이

미 문이 없다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무문 스님의 《무문관》은 무문 스님이 1228년 동가의 용상사에 있을 때, 남자들이 가르침을 청함에 옛 사람의 공안으로 가르쳤는데, 그것들을 간략히 기록해 둔 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저자 무문 스님은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한 자루 칼을 지고 곧바로 뛰어든다면 여덟 개의 팔을 가진 흰색 귀신도 그를 가로막아 세우지 못할 것이고, 서천(인도의 스물여덟 조사와 동토(중국)의 여섯 조사마저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지만 해도 그저 목숨을 구걸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망설임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참 너머로 말 달리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놓치게 될 것이다.”고 서문에서 법을 구하는 이들에게 일갈하며 책을 연다. 48공안을 한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책이다. 하지만 책장 한 장 한 장은 넘길수록 점점 무거워진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평송자 설봉 학몽(雪峰鶴夢, 1890~1969) 스님은...
 1890년 11월 25일 함북 부령(富寧)에서 태어났다. 1902년 한성 중앙학교를 거쳐 공업전문학원에 들어가 신학문을 배우고, 1910년 스무 살 되던 해에 조선총독부 문관(文官)으로 취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항일운동에 관련되어 검거되었다. 1915년 25세에 함경남도 안변의 석왕사(釋王寺)로 출가해 참선 공부에 전념한다. 1920년 만공(滿空) 스님 회상에 머물며 더욱 공부를 깊이 하고 만공 스님의 법을 이었다. 이어 1925년에는 도봉산 망월사 용성(龍城) 스님 문하에서 정진했다. 이후 20여 년간 오대산,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등에서 정진했다. 1969년 4월 17일 선암사에서 세수 80, 법랍 55세로 원적에 들었다. <선문촬요>, <선관책전>, <선문명승> 등의 원전을 현토 주석한 저술을 남겼다.

“왜 난 항상 시간이 부족할까?”

제2의 시간

스티브 테일러 지음 | 정나리아 옮김 | 용오름 | 값 13,000원



20대에 20km, 30대에는 30km, 40대에는 40km, 50대에는 50km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간다는 말이 있다.

시간의 물리적 흐름은 언제나 일정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느낌은 강해진다. 삶에 있어서 모두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유독 나에게만 시간은 부족한 것만 같은 것이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다. 시간의 흐름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제2의 시간》은 시간 심리분석서다. 책에서 저자는 시간의 심리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흐른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몰입을 하면 시간은 빨리 흐른다. △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의식하는 정신이 사라지면 시간은 천천히 흐르거나 아예 멈춘다.

저자는 시간이 물리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속도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기령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은 일정 기간의 시간이 전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50세 어른의 1년과 10살 아이의 1년은 각각의 인생에 있어 1/50, 1/10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인 시간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 달리 느껴지는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 이 책의 의도는 아니다. 저자는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강조한다.

저자는 시간을 풍족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시간은 우리의 인식에 따라 천천히 흐를 수도 있고 아예 초월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밝힌 다섯가지 시간의 법칙 중 우리의 삶에서 요긴한 것으로 두번째 법칙(새로운 경험)과 다섯번째 법칙(자아 초월)의 실천을 권한다. 이 두가지 방법은 현재의 상황에 익숙해져 시간이 무감각해질 때 새로운 환경과 경험을 찾고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만 자아를 찾는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자아를 벗어던지려는 것은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로 제시된다. 휴식을 취하기 전 ‘땀뻘 자아’는 언제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흘러가도록 재촉하는 감각적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저자는 이미 지난 시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대신 현재에 충실한 것도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시간을 활용하는 해답이 마인드풀니스이기에 책의 말미에는 명상의 비중이 크다. 저자와 논자를 함께하는 다양한 학자들의 논문과 저자를 인용하고 있지만 비교적 쉽게 읽히는 것이 특징이다.

노덕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한지공헌자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인	생앤마켓스
4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개정증보판)	김재웅	웅화
5	깨달음	법륜	정토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8	진리의 화원	덕현	법화
9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10	기도	법륜	정토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태중보살 아가를 위한 엄마의 기도문

불교태교기도문

송암지원 엮음 | 도파인사 펴냄 | 1만2천원



“태중보살 우리아가야, 나 엄마야! / 우리 아가를 뱃속에 품고 있는 나 엄마란다. / 태중보살 나의 아가야, / 엄마의 이 목소리를 알아들었니? /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있니? / 엄마의 마음이 가슴에 와 닿니? / 엄마의 기도가 귀에 들리니?”

‘태중보살인 아가에게 들려주는 엄마의 기도’다. 불교적인 태교는 어떤 것일까. 송암 지원 스님이 소개하는 불교적인 태교다.

태교가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지능지수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역할 비율이 48%이고, 태내의 환경이 52%를 차지한다고 한다.

조선시대 《태교신기》에서도 “태교의 열 달은 스

승 교육 10년보다 낫다.”고 했다. 태아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나 사건은 출생 후 건강, 기질, 성품, 지능, 정서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태교는 훌륭한 아기를 낳아 양육하는 일뿐 아니라 한 가정과 사회는 물론 국가와 인류의 밝은 장래를 위해서도 큰 교육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임신부는 태교를 임신 기간 동안 기도와 수행을 통해 훌륭한 아기 탄생은 물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자질과 덕목을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임신부와 그 가족은 소중한 아기가 준비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태교는 쉬운 일이면서 대단히 어려운 숙제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기의 탄생을 위해 부모는 계획 임신과 더불어 건강한 몸, 균형 갖춘 영양, 올바른 마음가짐과 성실한 생활 태도, 그리고 항상 편안하고 안정된 정서를 유지하는 것 등이 매우 중요하다. 즉 임신부가 태교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 몸가짐을 잘하는 수행이 필요한데, ‘수행’이라고 하면 바로 불교와 직결되고, 불교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수행 방법을 축적해 오고 있다. 태교와 그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 일찍이 관심을 두었던 송암 스님이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태

교 기도문을 엮어냈다.

책은 ‘임신부의 일승(日誦)’, ‘임신부의 일과(日課)’, ‘임신부의 마음가짐 10가지’, ‘임신부의 생활지혜 8가지’ 등 임신부를 위한 ‘지침’과 제1장 ‘기도편’, 제2장 ‘서원편’으로 되어 있다.

“나모라 다니다라 아야 나막알야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음 살바 바에수 다라나 가라야...”

제1장 기도편에는 ‘예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등 불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경전구와 기도문들이 실려 있고, “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훈련을 하자. 이윽고 미와 건강과 행복이 찾아온다. 일순간이라도 불쾌한 표정을 짓지 말자. 불안한 표정을 짓지 말자. 항상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믿자. 감사하자. 어둠은 아침을 예고한다. 구름은 이윽고 사라진다.” 제2장 서원편에는 ‘육조대사의 법보단경 반야품’, ‘보현행자의 서원’, ‘광덕 스님의 마하반야바라밀다 수행법’ 등 임신부가 태중보살을 위해 가슴에 간직해야 할 차분한 가르침들이 들어 있다. 좋은 태교를 원하는 모든 임신부와 그 가족을 위한 태교 지침서다.

박재완 기자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속 불교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 중에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가려뽑아 그 용례와 현대적 쓰임새, 불교적 의미와 기원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신세대 장병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어떻게 군생활을 의미있게 보낼 것인가? 군법사인 저자가 강원도 산골의 병영에서 전하는 병사들의 일상과 군생활의 지혜!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병사와 풍경소리

전문가와 일반 불자들을 아우르는 알기 쉬운 해설!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